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Relations between Child Temperament and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임강사 문혁준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Hyukjun Moo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lations between child temperament and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The subjects were 220 mothers and 220 fathers of kindergarten children. Child temperament was assessed using Colorado Childhood Temperament Inventory and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were measured by Parenting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1) Fathers recognized their male children's temperament as more soothable and less emotional than those of female children whereas mothers recognized their male children's temperament as more active than those of female children. (2) Fathers recognized their children's temperament as more active than did mothers, but mothers recognized their children's temperament as more soothable than did fathers. (3) Children who were more sociable, less emotional, more sootable, and had longer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were related to more effective paternal disciplinary practices. (4) Children who were less emotional and had longer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were related to more effective maternal disciplinary practices. (5) Paternal disciplinary practices were explained by children's emotional temperament, whereas the best predictors of maternal disciplinary practices were children's emotional temperament and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I. 서론

기질은 정서적 반응의 질과 정도에 있어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개인차를 의미하며(Goldsmith, 1987),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의 하나로써 큰 의미를 갖는다. 즉, 활동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 아동들과 매우 사회적인 동시에 갈등 및 대립 상황에 더 빈번하게 처하게 되며, 민감한 감정과 격하기 쉬운 기질을 소유한 아동은 또래를 공격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상호작용을 많이 나타낸다. 반면 수줍음이 많거나 비사회적인 아동은 급우의 놀이를 방관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동들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roberg et al., 1990; Hinde et al., 1985). 또한 기질이 갖는 주요한 특성으로 발달상의 지속성을 들 수 있다. 즉 영아 또는 유아기에 보이는 기질이 몇 년 후 심지어 성인기에 재측정 되었을 때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측면으로써(Caspi & Silva, 1995; Kochanska & Radke-Yarrow, 1992; Riese, 1987; Ruff et al., 1990), 인간발달에 있어 초기에 형성된 기질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영유아기를 대표하는 발달적 특성이며,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된 기질적 측면(Lerner et al., 1986; Plomin & Stocker, 1989) 역시 근래에 들어 환경적 맥락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Bates, 1987). 특히 유아의 제반적인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은 아동의 특정 기질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 예로 Cameron(1978)은 부모가 너무 엄격하거나 비일관적 훈육을 할 때 남아는 적응성과 긍정적 기분의 점수가 낮아지고, 여아는 지속성의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비일관적 훈육태도, 간접적 지시의 사용, 강화의 부족, 그리고 통제 상황에서의 애정 표시 등은 아동의 성인에 대한 반항 혹은 불복종과 관계가 있으며(Kuczynski et al., 1987), 부모의 방임적 혹은 과잉반응적인 훈육방식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

된(Patterson, 1976) 선행연구 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부모의 훈육방식은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 및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인 관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거론하는데 있어 아동의 기질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으며(Belsky, 1984; Thomas, & Chess, 1983), 이는 아동의 기질 유형에 따라 부모의 훈육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양육하기 어렵다고 인지하는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에는 아동의 부정적 기분, 낮은 적응성, 심한 신체 움직임 및 높은 활동 수준, 진정이 쉽게 되지 않는 울음 등이 선행연구(Hubert & Wachs, 1985; Bates et al., 1979; 최영희, 1997; Vaughn et al., 1992)에서 언급되었다. 다시 말하면, 까다롭고, 고집이 세며,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아동의 특성은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보다 문제 상황을 빈번히 초래하여 부모들이 더 간섭적이며, 통제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게 하며(Lee & Bates, 1985), 더 나아가 부모를 방임적 또는 비애정적 심지어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양육태도로 바뀌게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Anderson et al., 1986; Lytton, 1990; Hinde, 1989; Anderson et al., 1986). 이상의 결과들은 아동의 기질은 부모-자녀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발달적 특성인 동시에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부모의 부정적 훈육방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임을 시사해준다.

또한, 아동의 기질과 부모양육태도를 거론하는데 있어 아동의 성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즉, 어머니는 까다로운 기질의 남아에게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통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여아에게는 반응 유형과 통제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Maccoby et al., 1984; 최영희, 1995). 또한 어머니는 순한 기질의 남아보다 까다로운 기질의 남아에게 더 많은 지시를 하는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여아에게는 순한 기질의 여아보다 적은 지시를 하였으며(Gordon, 1983), 격한 남아의 울음보다 격한

여아의 울음에 어머니는 더 반응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Crockenberg, 1986).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남아보다 여아의 부정성을 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Sanson et al., 1993)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아버지는 남아의 경우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여아의 경우 순한 기질을 소유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하는 활동에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Lamb et al., 1982; Rendina & Dickerscheid, 1976).

최근 연구동향은 아동의 기질형성은 부모의 훈육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훈육방법 또한 아동의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쌍방향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예를 들면, 김광웅·이미애(1995)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훈육태도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Lee와 Bates(1985)도 기질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데 부정적 모-자 관계가 중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혔다. 즉 유아 초기의 높은 활동수준과 강한 정서반응의 기질적 특성과 자녀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공격성을 초래하며(Olweus, 1980),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부모가 비일관적이며, 참을성이 없고 강요적일 때 심리적인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Thomas & Chess, 1977). 또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더 감정적이며 처벌적으로 자녀를 훈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적합한 행동에 비일관적으로 훈육함에 따라 아동의 불순종적인 행동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Bates, 1985). 이와 같이 부모의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이 아동의 부정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데 일조함을 감안할 때 자녀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자신의 훈육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질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많으나 구체적으로 아동의 기질적 행동양상과 부모 훈육방법의 특정

행동별 관계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거의 없다.

특히 아동의 문제행동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 부모 훈육방법(예: 규칙 이행 여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 및 강도, 언어 통제 유형 등)을 자녀의 기질적 특성과 결부시켜 조사하는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성역할개념의 변화로 인하여 아버지의 양육이 점점 증가하는 시대적 추세를 비추어 볼 때 어머니-자녀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아버지-자녀 관계를 연구하고 비교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적의 아동 발달을 위하여 부모-자녀간의 조화(goodness-of-fit)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반하여 아버지를 이와 관련시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동시에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머니에만 의존하는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아버지는 소홀히 다루어져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한 맥락에서 자녀의 기질을 지각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기질에 있어 각각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며, 아동의 기질이 부모의 훈육 방법에 어떤 양상으로 관련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훈육방법을 예언해 줄 수 있는 변인들과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훈육방법과 관련된 아동의 기질 변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부모 및 부모교육 관련 실무자 그리고 아동 관련 종사자에게 아동의 기질에 따라 효율적인 훈육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취학전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은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의 기질을 지각하는데 있어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기질과 아버지의 훈육방법과는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법과는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훈육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7) 부모의 훈육방법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기질의 하위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만 6세의 자녀를 둔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연령은 30대가 전체의 7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대졸과 고졸이 43.7%, 31.4%로 각각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회사원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인 11.4%, 중소기업경영자가 8.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은 30대가 전체의 91.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대졸과 고졸이 30.1%, 45.9%로 각각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가정주부가 77.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자가 6.4%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199만원이 51.6%, 200-299만원이 27.4%로 분포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아동의 특성은 남아가 59.5%이었으며, 출생 순위는 첫째인 아동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부모 훈육 방법

부모 훈육 방법은 Arnold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1991년도에 제작된 Parenting Scale이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방임성(9 문항), 과잉반응성(5 문항),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7문항)의 세가지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에 문항들의 예를 보면 방임성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게 내버려 둔다', 과잉반응성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리를 지른다', 언어사용의 장황적 표현성에서는 '아이와 길게 언쟁을 벌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총 점수의 범위는 21점부터 10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하위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적이고, 과잉반응적이며, 언어표현이 장황한 것을 뜻한다. 내적합치도는 비엄격성 .67, 과잉반응성 .74, 장황적 표현성 .66, 전체 .73이다.

2)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Rowe와 Plomin(1977)의 CCTI (Colorado Childhood Temperament Inventory)가 사용되었다. 하위영역은 사회성, 진정성, 활동성, 정서성,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성은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며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우호적 측면을 가리키며, 진정성은 격한 감정에서 쉽게 진정되는 경향을 뜻한다. 활동성은 전체적인 활동량을 의미하고, 정서성은 감정 표현에 있어 반응의 강도를 나타내며,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은 한 가지 활동에 얼마나 오랫동안 몰두하는가를 뜻한다.

이 도구는 '완전 불일치'의 1점에서부터 '완전 일치'의 5점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이며,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이고, 진정이 쉽게 되며, 활동적이고, 감정 표현이 격렬하지 않으며,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기질(낮은 사회성, 낮은 진정성, 높은 활동성, 강한 정서성, 짧은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까다로운 기질에 반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역산하였다. 총 점수범위는 25~125점까지이며,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방법

부산시에 소재한(사하구, 연제구, 부산진구) 3개 유치원 8학급을 임의로 선정한 다음 담당 원장과 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질문지를 지침서와 함께 부모에게 전달하였다. 지침서에는 질문지 작성시 부모가 서로 상의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며, 250쌍의 질문지가 배포된 가

운데 235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부실하게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후 220쌍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백분율이 구해졌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이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의 검증을 위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남아와 여아 두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는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으로 분류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 4, 5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연구문제 6은 아동의 기질 평균 점수에 따라 순한 집단과 까다로운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7의 분석을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표 1>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척도	문항수	신뢰도
사회성	5	.79
진정성	5	.62
활동성	5	.58
정서성	5	.71
주의집중기간 및 지속성	5	.74
전체	25	.67

III. 결과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5가지 구성영역의 기질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기질

기질	아동의 성별	남아		t값
		M(SD) (N=130)	M(SD) (N=90)	
부(父)	사회성	16.54(3.51)	16.13(4.03)	.803
	진정성	16.50(3.01)	15.67(3.07)	2.00*
	활동성	18.19(2.99)	17.68(3.28)	1.19
	정서성	15.22(3.56)	14.20(3.59)	2.07*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	16.32(3.61)	15.83(3.21)	1.04
	전체(까다로운 기질)	73.61(8.65)	75.88(8.34)	-1.93
모(母)	사회성	16.70(3.74)	16.10(4.27)	1.09
	진정성	17.15(2.98)	17.13(3.81)	.046
	활동성	17.89(2.78)	17.00(3.77)	2.00*
	정서성	14.92(3.58)	14.59(3.72)	.613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	15.94(3.50)	15.22(3.84)	1.44
	전체(까다로운 기질)	73.13(8.31)	74.02(9.22)	-1.746

* $p < .05$

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범주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진정성($t=2.00, p<.05$)과 정서성($t=2.07, p<.05$)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진정이 쉽게 되며, 감정 표현에 있어 덜 격렬함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범주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성 점수($t=2.0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활동적임을 의미한다.

2. 부(父)와 모(母)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 차이

자녀의 기질을 지각하는데 있어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의 기질범주에서 진정성을 높게 지각한($t=-3.62, p<.001$) 반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활동성을 높게 지각하였다($t=2.18, p<.05$). 즉 두 집단의 평균치를 비교해 볼 때,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아동이 쉽게 진정된다고 지각하는 반면,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아동이 활동적이라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3. 부(父)와 모(母)가 지각하는 아동 기질간의 상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 기질간의 상관

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의 모든 기질 범주를 지각하는 데 있어 유의한 상관관계($r=.30\sim.63, p<.0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아동의 기질과 아버지 훈육 방법과의 관계

아동의 기질과 아버지 훈육방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기질범주에서 활동성을 제외한 사회성($r=-.13, p<.05$), 진정성($r=-.15, p<.05$), 정서성($r=-.37, p<.001$),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r=-.20, p<.01$) 영역과 아버지의 자녀훈육방법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아

〈표 4〉 부(父)와 모(母) 상관관계

기 질	r값
사회성	.63***
진정성	.30***
활동성	.49***
정서성	.37***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	.55***
전 체(까다로운 기질)	.49***

*** $p<.001$

〈표 3〉 부(父)와 모(母)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

기 질	부(父)	모(母)	t값
	M(SD) (N=120)	M(SD) (N=120)	
사회성	16.39(3.75)	16.43(3.95)	-.143
진정성	16.18(3.07)	17.11(3.33)	-3.62***
활동성	17.99(3.11)	17.51(3.24)	2.18*
정서성	14.79(3.59)	14.74(3.65)	.166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	16.32(3.61)	15.83(3.21)	1.04
전 체(까다로운 기질)	74.54(8.59)	73.57(8.58)	1.65

* $p<.05$, *** $p<.001$

〈표 5〉 아동의 기질과 아버지 훈육 방법과의 상관계수

기질	훈육 방법	방임성	과잉반응성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전 체
사회성		-.04	-.12	-.10	-.13*
진정성		.00	-.19**	-.15*	-.15*
활동성		-.05	-.13	-.08	-.12
정서성		-.03	-.39***	-.38***	-.37***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		-.11	-.11	-.18**	-.20**
전 체(까다로운 기질)		.06	.28***	.31***	.30***

*p<.05, **p<.01, ***p<.001

동 의 기질이 사회적일수록, 진정이 쉽게 될수록, 감정 표현이 격렬하지 않을수록,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아버지는 효율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녀훈육방법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진정성과 과잉반응성($r = -.19, p < .01$), 진정성과 언어의 장황성($r = -.15, p < .05$), 정서성과 과잉반응성($r = -.39, p < .001$), 정서성과 언어의 장황성($r = -.38, p < .001$),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과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r = -.18, p < .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이 쉽게 진정되고, 감정 표현이 격렬하지 않을수록, 아버지는 자녀훈육시 덜 과잉반응적이며, 아동이 쉽게 진정되고, 감정 표현이 격렬하지 않고,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아버지는 자녀훈육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아버지의 비효율적인 훈육방법과 유의한 정적관계($r = .30, p < .001$)를 가지며, 방임성을 제외한 과잉반응성($r = .28, p < .001$) 및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r = .31,$

$p < .001$)에서 의미있는 정적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아버지의 훈육방법은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5.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훈육 방법과의 관계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훈육방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기질 범주에서 정서성($r = -.22, p < .01$) 그리고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r = -.23, p < .01$) 과 어머니의 자녀훈육방법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아동의 감정표현이 격렬하지 않고,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어머니는 효율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녀훈육방법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성과 방임성($r = -.15, p < .05$), 진정성과 과잉반응성($r = -.14, p < .05$), 정서성과 과잉반응성($r = -.22, p < .01$), 정서성과 언어의 장황성 표현성($r = -.26,$

〈표 6〉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훈육 방법과의 상관계수

기질	훈육 방법	방임성	과잉반응성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전 체
사회성		-.15*	-.04	-.05	-.11
진정성		-.05	-.14**	-.12	-.13
활동성		-.13	.02	-.11	-.11
정서성		-.04	-.22**	-.26***	-.22**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		-.23**	-.16	-.11	-.23**
전 체(까다로운 기질)		.16*	.24***	.18**	.26***

*p<.05, ** p<.01, ***p<.001

p<.001),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과 방임성($r=-.23$, $p<.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이 비사회적이고,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짧을수록, 어머니는 방임적이며, 쉽게 진정되고, 감정 표현이 격렬하지 않을수록, 어머니는 자녀훈육시 덜 과잉반응적이다. 또한 감정표현이 격렬할수록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비효율적인 훈육방법과 유의한 정적관계($r=.26$, $p<.001$)를 가지며, 하위영역인 방임성($r=.16$, $p<.05$), 과잉반응성($r=.24$, $p<.001$), 그리고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r=.18$, $p<.01$)에서 의미있는 정적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의 훈육방법은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6. 아동의 기질에 따른 자녀훈육방법 차이

아동의 기질에 따른 자녀훈육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질의 평균점수를 기초로 순한 집단과 까다로운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아동의 기질에 따른 부모의 전체 자녀훈육방법에서 차이를 보였으며($t=-3.62$, $p<.001$), 이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보다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에서는 과잉반응성($t=-3.32$, $p<.01$)과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69$, $p<.001$). 즉 두 집단의 평균치를 비교해 볼 때,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보다 자녀 훈육시 더 과잉반응적이며, 언어표현에 있어 더 장황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아동의 기질이 부모의 훈육방법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훈육방법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기질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아동의 기질 범주 중 유일하게 정서성($=-.33$, $p<.001$)이 아버지의 훈육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였다. 즉 아동의 감정표현이 더 격렬할수록, 아버지는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기질 변인은 독립 변인 5개중 2개, 즉 정서성($\beta=-.16$, $p<.05$)과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beta=-.18$, $p<.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두 변인은 부모의 훈육방법을 9%정도 설명해 주고 있었다. 즉 아동의

<표 8> 부모의 훈육방법에 관한 종다회귀분석

기질 부모	부(父) β 계수	모(母) β 계수
사회성	.00	-.02
진정성	-.03	-.04
활동성	-.07	-.06
정서성	-.33***	-.16*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	-.06	-.18**
R^2	.15	.09
F	7.14	4.28

* $p<.05$, ** $p<.01$, *** $p<.001$

<표 7> 아동의 기질에 따른 부모훈육방법

기질	훈육방법	순한 집단	까다로운 집단	t값
		M(SD) (N=220)	M(SD) (N=220)	
	방임성	21.64(4.83)	22.06(4.58)	-.940
	과잉반응성	14.08(3.25)	15.17(3.60)	-3.32**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16.65(3.50)	17.94(3.80)	-3.69***
전 체		52.37(8.01)	55.17(8.13)	-3.62***

** $p<.01$, *** $p<.001$

감정표현이 격렬할수록,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짧을수록 어머니는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220쌍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훈육 방법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그 차이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진정이 쉽게 되고, 정서적인 표현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한 반면,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남아를 여아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 잔존한 남아선호사상(김재은, 1988)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여아에 비해 남아를 가진 아버지들이 보고한 높은 부모역할만족도(양미경, 1996),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연미희, 1998), 그리고 여아보다 남아 아버지들이 보이는 효율적인 양육태도(문혁준, 1998) 등은 자녀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지각 차이에서 초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지각한 남아의 높은 활동성은 Klein(1980)과 이희선(199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 차이는 부모가 가지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 또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아동의 성별과 기질적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Crockenberg(198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아동이 더 활동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아동이 쉽게 진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자녀양

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와 상호작용시 어머니는 일상적인 돌봄이나 애정 표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아버지는 신체적인 놀이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선행연구(Lamb, 1987; Roopnarine et al., 1990)를 감안할 때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활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주양육자인 동시에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같이 공유함으로써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가 아동을 진정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가 평정하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가 평정하는 아동의 기질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자녀 기질 평정에 있어 부와 모간의 일치도는 중간정도로 고 제시한 Rothbart(1981, 1986)의 지적과 일치된 결과이다.

넷째, 아버지는 아동의 기질이 사회적일수록, 감정 표현이 강하지 않을 수록, 진정이 쉽게 될수록 그리고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이 쉽게 진정되고, 감정 표현이 강하지 않을 수록 아버지는 자녀 훈육시 덜 과잉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쉽게 진정되고 감정 표현이 강하지 않으며,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언어표현에 있어 간단 명료하였다. 한편 어머니는 아동의 기질이 감정적으로 강하지 않고,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효율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성이 낮고,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짧을수록 방임적이었으며, 아동이 진정되지 않고, 감정 표현이 강할 수록 과잉반응적이었다. 이는 화를 잘 내고 쉽게 감정에 좌우되는 등의 정서성이 높거나, 기분이 부정적이고, 과제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지구력이 낮은 아동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국내외 연구들과(최영희, 1997; Buss & Plomin, 1984)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아동의

기질이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 Bates(1987)와 Kochanska(1993)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높은 활동수준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최영희, 1997; Barkeley, 1981)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에 비해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며, 자녀 훈육시 더 과잉반응적이며, 언어표현에 있어 더 장황하였다. 이는 까다로운 영아의 어머니는 순한 영아의 어머니보다 강압적 통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최영희, 1993, 1995; 임양미,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Patterson과 그의 동료들은(1992) 이러한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를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더 처벌적인 전략을 끌어내기 때문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여섯째, 아동의 정서성이 아버지의 훈육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성과 주의집중 시간 및 지속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훈육태도에 정서성이 아동 변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밝혀진 문혁준(1998)의 연구와 자녀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등의 정서성이 높을 수록, 어머니는 거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박성연(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훈육에 관련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변인 중의 하나인 기질적 특성만을 측정하였으나, 부모의 심리적인 가치관, 부모역할에서의 자신감,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치관 및 문화적 배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자녀의 기질을 보는 부모의 관점과 이에 따라 행해지는 부모훈육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Levitt et al., 1986; Conger et al., 1984; Abidin, 1990; Ricciuti & Dorman, 1983; Ahadi et al., 1993;

Kyrios et al., 1989)를 토대로 할 때 국내연구에서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동기질과 부모훈육을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적 측면과 부모 훈육방법을 조사하는데 있어 부모의 보고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설문지 작성 당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일시적인 감정 등을 포함한 주관적인 부모의 견해가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 가족에 적용시키는데 타당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Likert식의 문항을 통하여 아동의 기질과 훈육방법을 양적으로 측정함에 있어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훈육방법의 자연스런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등의 질적 연구법을 병행하여 아동의 기질과 부모훈육방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는 유치원 아동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훈육방법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부모로 확대하고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종단적 연구 혹은 횡단-단기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한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아버지는 남아가 여아보다 쉽게 진정되며, 감정 표현에 있어 덜 격렬한 것으로 지각한 반면 어머니는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2. 아버지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간에 차이가 있다. 즉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아동이 활동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아동이 쉽게 진정된다고 지각하였다.
3. 아버지가 평정하는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가 평정하는 자녀의 기질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아동의 기질이 사회적일수록, 진정이 쉽게 될수록, 감정 표현이 격렬하지 않을수록, 주의 집중

- 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아버지는 효율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사용하였다.
5. 아동의 감정표현이 격렬하지 않고,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어머니는 효율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사용하였다.
 6.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보다 자녀 훈육시 더 과잉반응적이며, 언어표현에 있어 더 장황하였다.
 7. 아버지의 훈육방법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아동의 정서성으로 밝혀졌으며,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영향력 있는 아동의 기질 변인은 정서성과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1) 김광웅 · 이미애(1995).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생활과학연구지*, 10, 109-124.
- 2) 김재은(1988).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3)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4) 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지리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5)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부모 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6)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122.
- 7) 이희선(1995). 아동의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지각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논문집*, 13, 63-77.
- 8) 임양미(1994).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연구(I): 조화로운 합치 정도와 양육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217-226.

- 10) 최영희(1995). 유아 기질과 어머니 심리적 안정성의 양육태도 설명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 187-196.
- 11) 최영희(1997).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99-109.
- 12)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13) Ahadi, S. A., Rothbart, M. K., & Ye, R. M. (1993). Child temperament in the U.S. and Chin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 359-378.
- 14) Anderson, K. E., Lytton, H., & Romney, D. N. (1986). Mother's interaction with normal and conduct disordered boys: Who effects whom.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04-609.
- 15)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1). The parenting scale: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in discipline situ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5, 137-144.
- 16) Barkeley, R. A. (1981). Hyperactivity. In Mash, E. J. & Terdul, L. G. (eds), *Behavioral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17) Bates, J. E. (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Wiley.
- 18) Bates, J. E., Freeland, C. A., & Lounsbury, M. L. (1979). Measurement of infant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50, 794-803.
- 19)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20) Broberg, A., Lamb, M. E., & Hwang, P. (1990). Inhibition: Its stability and correlates in 16-to-40-month-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153-1163.
- 21)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22) Cameron, J. R. (1978). Parental treatment,

-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Initial temperament, parental attitude, and the incidence and form of behavior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 140-147.
- 23) Caspi, A.,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three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 486-498.
- 24) Conger, R., McCarthy, J., Yang, R., Lagey, B., & Kropp, J. (1984). Perception of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2234-2247.
- 25) Crockenberg, S.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 V. Lerner & R. M. Lerner (eds.), *Temperament and child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pp. 53-73). San Francisco: Jossey-Bass.
- 26) Goldsmith, H. H. (1987).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 505-529.
- 27) Gordon, B. (1983).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temperament and observed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3, 153-167.
- 28) Hinde, R. A. (1989). Temperament as an intervening variable.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27-34). Chichester, England: Wiley.
- 29) Hinde, R., Stevenson-Hinde, M., & Tamplin, A. (1985). Characteristics 3-to-4-to-year-olds assessed at home and their interactions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3-57.
- 30) Hubert, N. C., & Wachs, T. D. (1985). Parental perceptions of the behavioral components of infant easiness and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53, 1525-1537.
- 31) Klein, H. A. (1980). Early childhood group care: Predicting adjustment from individual tempera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125-131.
- 32) Kochanska, G., & Radke-Yarrow, M. (1992). Inhibition in toddlerhood and the dynamics of the child's interaction with an unfamiliar peer at age five. *Child Development*, 63, 325-335.
- 33)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Darby-Welsh, J. D. (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41-456.
- 34) Kyrios, M., Prior, M., Oberklaid, F., & Demetriou, A. (1989). Cross-cultural studies of temperament in Greek inf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4, 585-603.
- 35) Lamb, M. E. (1987).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s*. Hillsdale, NJ: Erlbaum.
- 36) Lamb, M. E., Frodi, M., Hwang, C., Forström, B., & Corry, T. (1982).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al attitudes following an infant's birth into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wedish famili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 53-62.
- 37)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38) Lerner, R. M., Lerner, J. V., Windle, M., Hooker, K., Lerner, K., & East, P. L. (1986).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ir contexts: Tests of a goodness of fit model. In R. Plomin &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39) Levitt, M. J., Weber, R. A., & Clark, M. 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40) Lytton, H. (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83-697.

- 41) Maccoby, E. E., Snow, M. E., & Jacklin, C. N. (1984). Children's disposition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at 12 and 18 months: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0, 459-472.
- 42) Olweus, D. (1980). *Familiar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43) Patterson, G. R. (1976). The aggressive child: Victim and architect of a coercive system. In E. J. Mash, L. A. Hamerlynck, & L. C. Handy (eds.), *Behavior modification and families* (pp. 267-316). New York: Brunner/Mazel.
- 44)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 OR: Castalia.
- 45) Plomin, R., & Stocker, C. (1989). Behavioral genetics and emotionality. In J. S. Reznick (ed.), *Perspectives on behavioral inhibition* (pp. 219-2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6) Rendina, I., & Dickerscheid, J. D. (1976). Father involvement with first-born infants. *Family Coordinator*, 25, 376-378.
- 47) Ricciuti, H. N., & Dorman, R. (1983). Interaction of multiple factors contributing to high-risk parenting. In R. A. Hoekelman (ed.), *Minimizing high-risk parenting* (Pediatric round table No. 7). Media, PA: Harwal Publishing.
- 48) Riese, M. L. (1987). Temperament stability between the neonatal period and 24 month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16-222.
- 49) Roopnarine, J. L., Talukder, E., Jain, D., Joshi, P., & Srivastave, P. (1990). Characteristics of holding, patterns of play, and social behaviors between parent and infants in New Delhi, India.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67-673.
- 50)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51) Rothbart, M. K. (1986). Longitudinal home observation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56-365.
- 52) Rowe, D. C., & Plomin, R. (1977).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 Assessment*, 41, 150-156.
- 53) Ruff, H. A., Lawson, K. R., Parrinello, R., & Weissberg, R. (1990). Long-term s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ustained attention in the early years. *Child Development*, 61, 60-75.
- 54) Sanson, A. V., Smart, D. F., Prior, M., & Oberklaid, F. (1993). Interactions between parenting and temperament among 3-to 7-year-old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 55)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56) Thomas, A., & Chess, S. (1983).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 In W. Damon (ed.),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W. W. Norton & Company.
- 57) Vaughn, B. E., Stevenson-Hinde, J.,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ss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63-473.